

**NOROO**

NOROO

Summer.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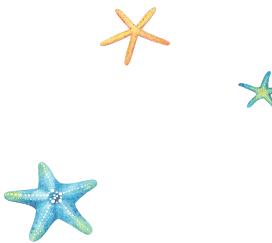


Summer. 2015

바다。

**NOROO** Quarterly Magazine | 2015년 여름 36호

**NOROO**

**Special Theme****바다, 지구를 품다**

- 06 **Essay**  
08 **Information**  
12 **Interview**

바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기쁨  
파도에서 심해까지  
바다가 온다  
사진가 윤명숙

**Culture Gallery**

- 16 **Goods**  
18 **Travel**  
20 **Finance**  
22 **Camping**

지구를 촉촉하게 유지시키는 휴대용 물병  
오래된 골목으로, 조금 먼 옛 이야기로  
잘 키운 나무, 열 투자 안 부럽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빠의 캠핑요리

- 26 **High Five**  
30 **Special Interview**  
34 **Social Contribution**  
38 **Family Trip**  
42 **Special Store**  
46 **New Opening**  
48 **News Briefing**  
50 **Behind Cut**

울산의 전진기지, 도전으로 도약한다  
(주)노루페인트 울산 지점  
굿바이, 더위 헬로우! 화이트루프  
서울시, 십년후연구소와 함께하는 화이트루프클러시티  
페인트로 바꾸는 세상  
(주)노루페인트와 경기도청의 환경개선 MOU  
우리는 모두 한가족, NOROO가족큰잔치  
한번 NOROO는 영원한 NOROO  
㈜동선  
생활 속의 NOROO,  
이마트타운 더라이프 컬리스튜디오 by NOROO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인사총무팀 장원석 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A동 10층 T:02-2191-7716

(주)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128

(주)아이피케이 총무팀 배부근 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T:051-580-8363

(주)노루오토���팅 전략기획팀 백현정 대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7길 28 T:031-8059-9517

(주)노루케미칼 인사총무팀 한준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13 T:031-599-7276

(주)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이승아 사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11 T:041-620-6200

(주)노루코일코팅 지원팀 박서진 대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486

(주)노루로지넷 총괄지원팀 전희경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63

(주)노루알앤씨 인사총무팀 현준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8 T:031-599-7276

칼라메이트(주) 업무총괄팀 유은아 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79

## 바다, 지구를 품다

“지구라는 이름은 얼마나 부적절한가. 이곳은 지

구이기보다는 수구(水球)이거나 해구(海球)여야

한다” 시인 고은의 말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

구, 아니 해구의 모습을 보면 그 말에 공감할 수밖

에 없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최초의 우

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탄성하듯 내뱉은 첫 마디

도 “지구는 푸르다”라는 것이었죠. 그 푸르름은 지

구의 70%를 차지하는 너른 바다에서 옵니다. 고

은은 ‘하루 70만 번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모든 바

닷가에서 삶이 비롯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바다의 운명에 속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06.

Essay

바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기쁨

08.

Information

파도에서 심해까지

12.

Interview

바다가 온다

**Special Theme**

>  
바다,  
지구를 품다

# 바다, 아직

# 끝나지 않은 기쁨

**니들은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나?**

**바다가 바다인 건  
다 받아주기 때문이야.**

바다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독도 근처로 해양 실습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당시 해양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하신 말씀.  
지금은 그 교수님의 얼굴도 성함도 잊어버렸지만  
저 말씀만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 **바다, 매혹과 위안**

지금껏 살아오면서 바다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을 겁내는 사람도 바다는 좋아하는 경우  
도 있었고요.

바다가 주는 의미는 사람마다 무궁무진할 거예요. 누군

가에겐 휴식이나 재충전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위안의  
공간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낚시나 서핑,ダイ빙 같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일 테지요. 또 어떤 이  
들에게 생업을 위한 소중한 일터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  
고 기선이 발명되기 전, 범선 항해의 시대에 바다는 모  
험과 꿈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엔 새로운 삶,  
새로운 대륙을 찾아 사람들이 미지의 먼 바다로 나아갔  
으니까요.

이제 지구상에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대륙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일일생  
활권이 되었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  
다는 그 매혹을 잃지 않았고 사람들은 오랜 고향을 찾아  
가듯 바다를 찾고 또 찾습니다. 시인 마종기는 어느 시에  
서 별을 두고 '별, 아직 끝나지 않은 기쁨'이라고 노래했  
지요. 바다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인류가 우주를 항해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술한 생물들의 계획 지도를 완성  
해 가는 21세기에도, 바다는 여전히 인간에게 끝나지 않  
은 기쁨이자 위안입니다.

#### **지구별, 그리고 바다**

바다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성적인 매력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  
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아직 생명체의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출현했을 거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바다를 구성하는 '물'이라  
는 물질은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열용량)이 대단히 커  
서, 주변의 기온 변화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한 안정적인 온도 범위를 제  
공할 수 있지요. 또 물은 여러 물질을 녹일 수 있는 힘(용  
해력)이 뛰어나서 생물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  
소를 머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혈액처럼 생명체의 체  
액이 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전 지구적인 기상 현상의 발원지이자 지구  
차원의 기후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지  
구온난화,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다가 없었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워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바다가 열을 저  
장하는 능력(비열)은 공기에 비해 약 3천 2백 배가 높습  
니다. 그래서 바다는 열대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열을 흡  
수해, 이를 바람이나 태풍과 같은 여러 기상 현상을 통해  
지구 전체에 골고루 퍼뜨려 주는 것이지요.

#### **소중한 바다**

이렇듯 소중한 바다가 오늘날에는 여러 오염에 시달리  
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석회가루를 뿐  
만 듯 해저가 허옇게 변해가는 백화현상 때문에 해양 생  
물종과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  
서는 아름다운 바다지만 속으로는 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바다의 매력에만 취  
하지 말고, 바다의 소중함도 함께 마음 깊이 담아보면 어  
떨까요.

**Special Theme**

&gt;

바다,  
지구를 품다.



01.

## 파도에서 심해까지

우리에게 바다는 감상적인 공간으로 먼저 떠오릅니다. 감정을 토로할 길이 없을 때 바로 떠나거나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이렇듯 친숙한 바다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가 모두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상 99%의 공간이 모두 바다에 속하고, 바다 속 식물성 플랑크톤이 육지의 식물이 만드는 산소량보다도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요?<sup>a</sup> 우주만큼이나 무궁무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다로 떠나봅니다.

### 심해에 내리는 눈

바다 속에서 눈이 내리는 것, 상상이 가나요? 1930년대에 잠수구를 타고 바다 속 900여 미터 아래까지 내려가 첫 심해 탐사에 성공한 미국의 탐험가 윌리엄 비브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눈가루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죠. 그는 여기에 '바다 눈'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다 눈은 바다 동물과 식물, 미생물과 플랑크톤이 죽어서 떨어지는 것인데, 심해 속 생물들에게는 고마운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sup>b</sup> 빛이 도달하지 않는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 고요히 떨어지는 하얀 눈 그리고 깜깜한 바다 속에서 그것을 받아 먹는 미지의 물고기와 플랑크톤들이라니, 으스스하기도 하지만 신비롭게 느껴지네요.



02.

###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로마 신화에서는 네뷸로 불립니다. 바다를 비롯해 풍랑과 구름을 다스리지요. 그는 대개 하얀 머리와 수염을 바람에 휘날리며 트리아이나라는 삼지창을 들고 백마가 끄는 수레에 올라 진격하는 모습으로 미술 작품에 자주 등장합니다. 포세이돈은 천공의 신 제우스, 저승의 신 하데스와 형제로 바다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일설에서는 그가 '대지를 뒤흔드는 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에서 땅의 지배자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솟았다는 말의 탄생과 파도로 형상화되는 백마와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죠. 그러나 제우스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려나면서 그는 바다의 신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03.

### 미스터리의 버뮤다 삼각지대

미국의 플로리다와 푸에르토리코, 버뮤다 제도를 잇는 삼각형의 해역, 버뮤다 삼각지대는 비행기와 배 사고가 자주 일어난 데다가 그 과연이나 시체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마의 바다'라고 불리며 세계의 미스터리로 꼽힙니다. 1609년부터 2009년까지 이곳에서 사라진 배가 17척, 비행기도 15대라고 하는데, 뚜렷한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온갖 추측이 난무할 뿐입니다. 미국 해양 지질학자인 메키버 박사는 바다 속의 거대한 메탄 가스가 수면 위로 부상해 배를 침몰시키고 항공기 폭발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sup>c</sup> 일각에서는 어느 해역이나 오랜 세월 동안 사고는 누적되는 법이라며 따져보면 실종이나 난파의 기록이 그리 놀랍지 않다는 의견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미스터리는 바다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sup>a</sup> 남성현, 「바다에서 희망을 보다」, 이담북스, 2012

<sup>b</sup> 강대훈 글 · 김소희 그림, 「바다 박사가 될래요!」, 웃는돌고래, 2013

<sup>c</sup> 윤경철, 「대단한 바다여행」, 푸른길, 2009

**Special Theme**

&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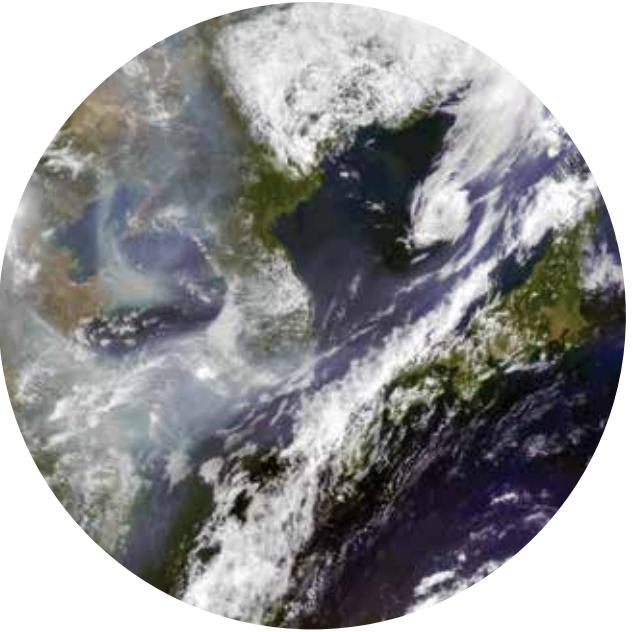
바다,  
지구를 품다



04.

**바다 속 자원, 고마운 동해**

바다 속에는 육상에 비해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광물자원 또한 육상의 것에 비할 바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망간, 니켈, 코발트 등은 육상의 부존량이 40~110년인 것에 비해 해양에서는 200~1만 년 정도로 추정되고,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여 얼음처럼 고체화된 천연가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경우는 육지 천연가스 매장량의 100배인 10조 톤 규모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울릉도-독도 근해에도 길게는 100년까지 쓸 수 있는 6억 톤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요, 돈으로 환산하면 252조 원의 규모랍니다.<sup>d</sup> “동해물과 백두산 이~”의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이 소중한 동해를 꼭 떠올려 주세요!



05.

**바다를 보는 새로운 방법**

3면이 바다인 한국이라 우리는 여름이면 어느 바다로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 상세사진을 보듯, 해수욕장도 실시간으로 보고 고르는 건 어떨까요?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안의 장기침식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전국 해수욕장 주변 고층건물에 CCTV를 달아 비디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해양수산부/www.coast.kr – 연안참여 – 해변영상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그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 설치된 CCTV로 부족하다면 가가린처럼 우주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osc.kordi.re.kr) 홈페이지에서는 천리안 위성이 보내오는 우리 바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06.

**아래로부터의 파도**

파도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람이지만,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큰 파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쓰나미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진해일', 아주 사나운 너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울은 직접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파를 말합니다. 쓰나미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큰 파도가 눈에 띄지 않지만, 얇은 해안가로 전파되어올수록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특히 해안 부근에 도착하면 바닷물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면서 큰 파도가 다시 밀려오는데,<sup>e</sup>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의 참담한 광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지요. 그 피해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07.

**언젠가 꼭 가보리!**

여행전문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여행객들이 직접 다녀온 곳들을 기반으로 갖가지 여행지의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리뷰가 달린 비치들을 2015 수상 리스트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2,000개가 넘는 리뷰가 달린 필리핀의 보라카이 화이트비치가 1위로 꼽혔고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브라질의 페르난도 데 노로나에 위치한 바이아 도 산초가 3,000개에 가까운 리뷰로 1위에 등극했습니다. 바이아 도 산초의 경우, 리뷰 숫자뿐만 아니라 별점 또한 거의 대부분이 '아주 좋음'을 누를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운대가 아시아의 해변 중 20위를 차지했답니다. 해운대 최적의 여행시기가 6월~8월로 소개되는 반면, 바이아 도 산초는 '일년내내'라니, 좀 부러운데요?

<sup>d</sup> 남성현, 「동해, 바다의 미래를 묻다」, 이담북스, 2013

<sup>e</sup> 윤경철, 「대단한 지구여행」, 푸른길, 2011

**Special Theme**

&gt;

바다,  
지구를 품다



# 바다가 온다

## 사진가 윤명숙

바다에 갑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바다를 보기 위해선

우리가 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윤명숙 작가의 사진으로부터

우리는 다가오는 바다를 봅니다.

때로는 모래를 할으며 자박자박,

때로는 거칠게 파도를 부수며 바다가 들이닥칩니다.

우리가 보려 갈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바다를 우리에게 데리고 온 이,

윤명숙 사진작가입니다.

## 필름이 기억하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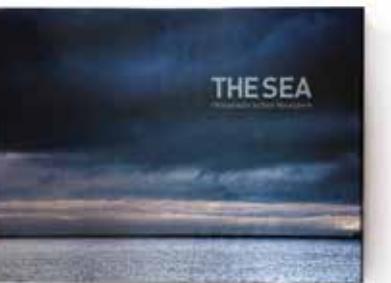
윤명숙 씨는 10년 넘게 바다를 찍어온 사진가입니다. 태풍이 불고 폭설이 쌓여도, 어두운 달밤과 얼어붙는 새벽에도 작가는 우리나라 곳곳의 바다 앞에 섰습니다. 왜 바다였냐는 질문에 그는 첫 순간을 떠올립니다. “원래 제주를 좋아해서 제주를 계속 찍었는데 어느 비 오는 날 부둣가에 나갔습니다. 보통 사진가는 비가 오면 밖에 잘 나가지 않아요. 습기 때문에 필름에 습기가 차고 렌즈에도 곰팡이가 끼니까요. 그런데 부둣가에 선 발 아래로 너른 바다에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는 순간 바다를 계속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할 수 없이 환상적이었어요.” 오로지 나만이 존재하는 공간 속에 거센 빗줄기가 신발을 적시며 자연이 말을 걸어왔다고 작가는 술회합니다. 그 때 마음 속 깊은 곳에 느꼈던 감정은 본인조차도 알 수 없다고, 그러나 필름만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 후로 10여년 간 필름이 기억한 순간들은 바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 줍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받아먹어도 적서지지 않는 목마른 바다, 무겁게 드리운 멱구름 아래에서도 평온한 바다, 달빛을 머금고 투명하게 일어나는 바다, 펴붓는 눈을 따뜻하게 녹이는 파도, 해가 진 후 붉은 노을을 품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든 바다…… 그 바다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길게는 1년까지 바닷가 한 자리 를 지키며 바다에 침잠했던 윤명숙 작가가 있었습니다.



## Special Theme

&gt;

바다,  
지구를 품다



#### 바다, 시간의 비늘

2003, 2008년 개인전에 이어 2010년 개인전을 열며 작가는 ‘시간의 비늘’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포스터에 쓰인 제주 이호 해수욕장 해변 사진을 그는 가장 아끼는 작품으로 꼽습니다. 밤새 모래를 밀어내고 당긴 파도의 흔적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죠. 당시 그는 “전에는 나의 내면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바다를 바다로 인정하는 시각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바다의 긴 시간을 보았다고요.

“바다와 내가 보낸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바다는 있겠죠. 내가 있든지, 없든지 말입니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까마득히 먼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바다는 비늘처럼 촘촘한 시간을 끊임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로부터 작가는 반짝이는 비늘 몇몇을 우리 앞에 테려다 놓았습니다. 마음을 털어내리 가던 바다, 더위를 씻어내리 가던 바다, 그 바다가 왔으니 이번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봅니다. 바다가 하는 이야기를.



## CULTURE GALLERY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하면서도 어디론가 떠나는 건  
변함없이 날 기다릴 집이 있기에  
그리고 변해서 올 나를 기대하기에.  
뜨거운 태양으로 날아오르는 이카루스처럼  
아스팔트 복사열도 이겨내는 열정의 휴가,  
시원한 물병 하나 들고 떠나봅니다!



## 지구를 촉촉하게 유지시키는 휴대용 물병

지난해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는 정부가 소유한 공유지나 공공시설에서의 생수 판매를 법으로 금지했다. 생수 판매는 지하수 난개발로 수자원 고갈을 일으키는 데다 페트병의 생산, 유통, 재활용에는 만만치 않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도 최근 일회용 병입생수 금지 및 수돗물 음수대 설치 조례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처럼 환경보호의 움직임과 함께 작년에는 일본 생활용품 업체가 내놓은 마이보틀이 엄청난 인기를 모으며 다양한 휴대용 물병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내 몸과 지구의 수분을 지키는 휴대용 물병, 기능에 따라 골라보자.



### 01. 기본에 충실한 별자리 투명 보틀

마이보틀의 인기에 국내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트라이탄 제품들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다. 트라이탄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고 내열 온도와 강도가 높아 젓병 및 음식 보관용기로 각광받는 소재다. 별자리 보틀도 트라이탄 물병으로, 전자레인지, 열탕소독, 냉동 사용이 가능하고 입구 사이즈가 넓어 세척이 편리하다. 속뚜껑이 따로 달려 있어 마실 때 얼음이나 음식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뚜껑에서 몸체까지 모두 국내 생산되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 02. 다 마시면 접어 넣기! 저버

아무래도 물병을 가지고 다닐 때 부담스러운 것은 부피다. 둑근 물병은 가방을 불룩하게 만들고 가방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기 마련. 음료를 다 마신 후 빈 병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니, 화장실 갈 때 와 나올 때가 다른 이 치사한 마음이라니!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비닐로 만들어져 접어 쓰는 물병, 저버(zuber)다. 끓는 물에 삶아도 안전한 첨단 라미네이션 공법의 3중 비닐이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뜨거운 물도 담아내며 비닐 특유의 냄새도 없다고. 물통에 클립이 달려 있어 휴대도 편리하다. 다 마시면 착착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 가볍고 부피도 작으니 휴대성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다.



### 04. 스포츠 활동엔 쿨기어 아이스스틱 보틀

여름철, 야외활동을 할 땐 음료수 병에 얼음을 듬뿍 넣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얼음이 녹아 음료의 맛이 맴맴해지는 슬픈 결말을 맞는다는 것! 끝까지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커피, 오렌지 주스, 탄산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쿨기어 아이스스틱 보틀을 이용해 보자. 용기 안의 프리저 스틱을 얼렸다가 보틀 안에 넣으면 차가운 음료는 물론, 미지근했던 음료까지 오래도록 차갑게, 원래의 맛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 스틱 안에는 응축된 냉기를 장시간 보관해 주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이라는 무독성 젤이 들어 있다. 말하자면, 물병 안에 슬림한 아이스팩을 안전하게 넣어두는 셈!

### 03. 맹물을 심심해, 티보틀

다양한 차를 즐긴다면 티보틀이 제격. 언더필터 트라이탄 리필 티포트는 아래쪽에 티백이나 찻잎을 넣을 수 있는 필터가 있어 물을 채울 때부터 다마실 때까지 차를 우려내어 즐길 수 있다. 위 뚜껑에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 여분의 찻잎이나 티백을 넣어둘 수 있는 것도 장점! 트라이탄 소재로 뜨거운 물도 바로 넣을 수 있어서 티보틀로 제 역할을 해낸다. 또 다른 티포트, 프리미엄 티포트는 아래쪽에서 우려낸 찻물을 본체와 분리시켜 사용자가 찻물 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해 마실 수 있다. 필터 아래 달려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만 본체로 찻물이 갈 수 있도록 한 것. 그냥 두면 떨을 정도로 차가 우려나게 되는 하단 필터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 05. 젖은 가방은 바이바이, 제리백 미니 포켓

차가운 음료는 나를 시원하게 하는 동시에 가방까지 시원히 적시기도 한다. 물병 표면에 송골송골 맷힌 물방울로 책이 젖거나 가죽 지갑이 얼룩진 경험은 누구나 있을 터. 물병에 보틀 커버를 씌우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 많은 보틀 커버 중 제리백 미니포켓은 우간다에서 직접 수입한 아프리카 패턴의 천에 가죽 손잡이를 달아 여름 느낌을 물씬 풍긴다. 옥수수와 밀 등 식물에서 추출한 합성수지로 만든 친환경 바이오 물통과 함께 판매되며 수익금은 우간다의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워크샵에 지원되니 이제 미니 포켓을 통해 가방이 아닌, 우간다를 적셔보는 게 어떨까?





# 오래된 길 으로, 조금 먼 이야기로

다시, 걷는 여행이다. 이번에는 우리의 일상을 담고 있는 도시를 걸어 보자. 도시의 뒷골목에는 거센 개발의 손길이 비껴간 과거의 흔적이 조금씩 남아 있다. 특히 근대의 적산기옥과 일본식 기옥 등이 남아 있는 골목은 가슴 아픈 과거를 느끼기도 하지만, 독특한 옛 정취로 많은 인기를 모은다. 너무 멀지 않아 좋은, 조금 먼 옛날이라 아스라한 골목으로 떠나 본다.

## 서울 세종마을(서촌) | 예술가의 정취가 흐르는 미로

경복궁 서쪽의 마을을 뜻하는 서촌은, 사실 외지인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북촌을 기준해 서쪽에 있어 서촌이라 불리지만 주민들에게는 효자동, 통인동, 옥인동 등의 이름으로 존재하며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후로는 세종대왕이 나신 마을이라 하여 기관에서는 세종마을이라 이름 붙였으나, 여러 이름이 있는 셈이다. 사대부 세력의 거주지였던 북촌에 비해 세종마을은 중인이 모여 살던 곳이자 경재 정선에 이어 근대의 대표적인 화가 이상범, 박노수, 시인 이상 등 여러 예술가들의 집터가 있던 곳이다. 북촌에 비해 한옥의 위세가 덜하지만 골목의 정취는 더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말은 곧 미로처럼 골목이 복잡하다는 뜻. 그만큼 정겨운 풍경을 만날 확률이 높다. 오랜 가옥과 아담한 카페, 인상적인 갤러리 등이 어우러진 세종마을의 미로를 즐기려면 지도는 들되, 자신의 눈과 발을 믿는 게 좋다.

\* 종로구청 홈페이지의 e-관광안내소에서는 관광지도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찾아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일단 찾는다면 세종마을 지도와 함께 청운효자동 지도도 함께 다운받길 권한다.



1. 세종마을 \_ 박노수 미술관 전경
2. 군산 \_ 장미갤러리 외관
3. 군산 \_ 장미갤러리 1층 내부
4. 대구 \_ 3.1만세운동길
5. 대구 \_ 이상화 고택 내부

## 군산 월명동 | 군산항, 수탈의 현장을 가다

일제강점기 시절 군산항은 비옥한 호남지대의 미곡을 일본으로 실어내던 수탈의 현장이었다. 하루 기차 300량이 쌀을 실어왔다니, 그 쌀을 빼앗겨야 했던 역사가 아프고 안타깝기만 하다. 물류가 모이는 항구에는 돈과 사람도 모여들어서 당시 군산은 일본인 대지주들이 일본식 가옥뿐만 아니라 절도 지어 살았는데 이 건축물들이 지금 남아 그들의 화려했던 생활과 그들에게 고통 받았던 이 나라의 슬픔을 전한다. 여행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시작해 (구)군산세관본관, 장미공연장(藏米—수탈한 쌀의 곳간이라는 뜻이다), 근대건축관 등 근처를 둘러본 뒤 약 20분 거리의 신흥동 일본식 가옥과 동국사 대웅전 등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가는 길에 유명한 이성당 빵집과 8월의 크리스마스의 배경이 된 초원사진관도 구경해 보자.

\* 군산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그 일대에서 '근대, 현대 그리고 미래가 소통하는 한마당'을 주제로 군산 시간여행 축제를 연다. 올해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며 시간여행 인력거 체험, 근대복장 퍼레이드 등이 있으니 이 시기에 찾는 것도 좋겠다. 일제강점기 시대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조정래의『아리랑』을 읽고 가는 건 어떨까.

## 대구 골목투어 | 역사의 현장이 그대로

대구는 한국 전쟁의 피해가 적어 근대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도시다. 그러나 오랜 방치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황폐해져 가던 차, 중구청은 직접 나서서 동산청라언덕에서 3.1만세운동길과 이상화, 서상돈 고택을 지나는 근대문화골목을 만들어 도시에 문화의 향기를 불어넣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역사문화발굴보존운동을 벌이면서 5개의 근대골목투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고 2012년에는 '한국관광의 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미리 투어를 신청하면 해설사로부터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공연과 풍속재연행사, 코스의 상점 및 문화 공간에서 벌어지는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 두 시간짜리 산책길이 풍성한 하루 여행으로 남을 것이다.

\* 대구광역시 중구청 골목투어 홈페이지 하나면 다른 검색이 필요 없다. 각 코스의 지도 및 참가신청 방법, 안내책자부터 맛집, 주차장, 화장실까지 골고루 소개하고 있어 여행 계획을 쉽게 짤 수 있다.

## 잘 키운 나무, 열 투자 안 부럽다

### 힐링까지 더해주는 나무 재테크

20년 간 직장생활을 하며 여러 방면의 투자를 경험한 40대 초반의 A씨. 큰 손해는 없었지만 저조한 수익률과 불안정한 전망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고민하다 지인의 나무농장에 관심을 갖고 나무를 키우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소유한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말마다 나무를 가꾼 지 3년. 지금은 나무 한두 그루로 한 달 급여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저금리와 장기 불황 속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나무 재테크가 요즘 눈길을 끈다. 푸른 자연을 통해 힐링과 환경 보호까지 챙길 수 있는 나무 재테크에 대해 알아보자.

글 · 이경숙 참고 · 『나무부자들』(빠른 거북이)



#### Tip.

나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트리디비 [www.treedb.co.kr](http://www.treedb.co.kr)

전국 각지의 조경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이트. 농장 조성부터 조경수 재배와 관련한 심층적인 자료를 만날 수 있다.

나무사랑연구회 [cafe.daum.net/pinepure](http://cafe.daum.net/pinepure)

매년 나무 재배부터 유통판매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나무학교를 개최한다. 카페에서 수목 직거래 장터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경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경기사, 녹지조경관리 등 전문과정도 마련되어 있다.

#### 색다른 투자 매력을 가진 나무 재테크

친환경 재테크로 꼽히는 나무 재테크는 A씨처럼 나무를 키워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나무 종자를 키워 어린 묘목을 만들어 팔거나 작은 묘목을 심어 수형(樹形)이 좋은 나무로 키우는 방법, 이미 자란 성목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값을 올려 되파는 방법 등이 있다. 나무 재테크에는 무엇보다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몇 년 동안 정성으로 키웠다 하더라도 기대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될 수 있는 만큼 작은 규모로 시작하다가 경험과 자신감이 쌓이면 점차 늘리는 식의 접근이 현명하다. 그리고 어떤 땅에, 어떤 나무를, 얼마나 심을지, 관리는 어떻게 할지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 자투리땅을 활용해 대중적인 나무부터 시작

나무를 심으려면 먼저 땅이 필요한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땅을 살 필요는 없다. 자투리땅을 빌려 쓰거나 저렴한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나 대지 등을 임대해 시작해도 좋은데 이를 위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http://www.onbid.co.kr))에서 물건을 찾아보자.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의 텃밭의 경우 1년에 1m<sup>2</sup>당 1,500~2,000원 정도에

임차가 가능하다. 땅을 임대할 경우 반드시 현지 답사를 거쳐 최소 1톤 트럭은 들어갈 정도로 충분한 길이 확보된 곳을 선택하고 계약기간은 5년 이상 길게 한다.

나무를 심을 때는 성장을 고려해 1.5~3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나무를 심을지 계획을 세워 농장의 크기를 정한다. 조경수를 심으면 최소 500~1,000m<sup>2</sup>(160~300평) 정도의 대지가 필요하다.

수종 선택 시엔 기후와 토양은 물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종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산수유, 단풍나무 등 수요가 지속적인 것부터 무난하게 시작한다. 나무의 성장기간을 고려해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단기 수와 성장속도가 더딘 중기수, 장기수를 적절히 배합해 식재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단기 수종은 식재 후 1~2년, 중기 수종은 3~4년 정도, 그리고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장기 수종의 경우 묘목의 크기에 따라 5년이나 길게는 10년 이후에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나무를 기르는 것만큼 잘 파는 것도 중요

나무는 수종에 따라 판매수익도 천차만별이다. 수종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통 1,000원

짜리 1년생 묘목을 심어 10년 정도 키우면 10만 원 선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2~3년생 묘목을 심는다면 초기 비용은 늘어나지만 키우는 시간은 줄일 수 있고 나무의 모양이나 가치에 따라 판매가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묘목 구입, 토지임대 등의 초기 비용과 제초작업, 비료주기 등 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부대비용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져 복리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나무 재테크다.

그러나 정성껏 키운 수목의 상태가 아무리 훌륭해도 너무 비싸면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급처 역시 많기 때문에 시세를 파악해 적정가를 매기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와 조경회사, 임협 등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나무를 유통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경수유통센터나 삼림조합, 협동조합, 조경수 영농조합 등의 다양한 판매ル트가 마련되어 있다. 수목을 거래할 경우 수목 매매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반드시 체크한다.

나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더불어 삶의 풍요와 여유까지 얻을 수 있는 나무 재테크. 일석삼조의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정성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빠의 캠핑요리

각종 TV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 특히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인 요즘, 아빠들의 요리 도전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특히, 캠핑지에서는 특히 아빠의 요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너무 부담 갖지 말자. 원래 야외에선 뭐든 맛있기 마련, 너무 잘 하려고 캠핑 요리 고수들의 레시피를 따르다간 재료 준비부터 힘들어질 수 있다. 캠핑의 기본인 바비큐에서 간식과 다음날 아침까지, 있는 재료로 준비하는 평범한 레시피 속 팁들을 전한다.



### 5분의 기다림이 맛있는 스테이크를!

캠핑의 목적은 바비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기와 숯은 캠핑의 필수요소다. 숯은 성형탄보다 유해물질이 적은 참숯을 쓰자. 가장 선호되는 고기는 워니워니해도 삼겹살, 그리고 그보다 기름이 조금 덜해서 굽기 편한 목살이다. 두 가지 고기는 집에서 요리할 때보다 좀 더 두툼한 것이 좋은데 소고기라면 더 두꺼워도 무방하다. 먼저 고기는 아이스박스에서 미리 꺼내어 두어야 한다. 차가운 고기를 바로 불에 올리면 육즙이 빠져 나와버리기 때문.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는 구운 즉시 후후 식혀 먹어도 맛있지만, 소고기의 경우엔 5분 정도라도 두었다가 절라 먹자. 그릴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자르면 가운데 몰려 있던 육즙이 다 빠져나가서 퍽퍽해진다. 굽기 직전에 소금, 후추를 뿌리는 것도 육즙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고기를 자를 땐 결을 확인하여 꼭 직각으로 잘라야 씹을 때 질기지 않다.



### 모든 요리는 기름으로 통한다

바비큐가 끝나도 캠핑의 요리는 계속된다. 그러나 복잡한 레시피와 손이 많이 가는 요리는 하는 자와 먹는 자 사이의 단절과 피곤을 남기므로, 최대한 간단하되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는 메뉴가 좋을 것이다. 이때 추천하는 것이 튀김과 전이다. 집에서는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뒤처리가 번거로운 튀김이야말로 아웃도어 요리로 제격인 데다가 뭐든 맛있게 변신시키니 요리 초보 아빠에게 딱이다. 기름에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바비큐 후 남은 감자, 고구마, 당근, 단호박 등의 단단한 채소를 튀김기루 반죽에 섞었다가 끓는 기름에 투입하면 완성. 고추, 파 등과 함께 얇게 썰어서 전을 부쳐도 좋다. 반죽을 차갑게 유지하면 더 바삭한 튀김과 전을 맛볼 수 있다. 양파와 청양고추를 썰어넣은 초간장을 준비해 가면 젓가락질은 더 바빠질 것이다.



### 더 주세요~ Some More, Smore

장작불의 열기가 은은하게 사그라들면 캠핑의 간식 시간이 온 것이다. 이제 마시멜로우를 꺼내어 꼬치에 꽂아보자. 타지 않도록 조심하며 말랑말랑하게 구운 마시멜로우를 비스킷 위에 올리고 초콜릿, 다시 비스킷 순서로 덮으면 미국인들의 캠핑 간식, 스모어 완성이다. 한 번 먹으면 “더 주세요(Some More)”를 외치게 한다 하여 스모어란 이름이 붙었다. 바나나에 시나몬 가루를 뿌려 호일에 싸서 구운 뒤 스모어와 함께 먹어도 맛있고 누텔라 샌과 땅콩버터를 섞어 풍득처럼 이용해도 좋다. 시나브로 사라지는 숯불에 구울 수 있는 건 마시멜로우뿐만 아니라 가래떡, 구워먹는 치즈, 캔디까지 있으니 다양하게 시도해 보자.



### 남은 음식이란 없다. 모듬 쌈장볶음

고기와 튀김, 간식으로 이어지는 거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물론 캠핑에서의 라면은 진리라 할 수 있지만, 남은 식재료가 있을 땐 이야기가 다르다. 어차피 집에 가져가는 동안 더 시들고, 다시 냉장고에 정리해 넣어야 할 재료들이 남았다면 캠핑장에서 깨끗이 털고 가자. 가져갈까 말까 생각이 드는 쌈장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쌈장 비빔밥이 효과적이다. 마늘, 감자, 양파, 고추 등등 남은 채소들을 적당히 다져서 적당량의 기름을 넣고 쌈장에 볶아주기만 하면 끝. 매실액이나 설탕을 넣어 짠맛을 중화하고 아침밥 준비에 남겨둔 쌀뜨물로 점도를 조절하면 된다. 어설픈게 남은 고추장과 고기를 넣어도 좋다. 점도에 따라 밥에 비비거나, 남은 상추에 올려 먹으면 아침도 해결되고, 가져갈 식재료도 줄일 수 있다.



# 울산의 전진기지, 도전으로 도약한다



김광덕 지점장



이장희 과장



박형근 대리



신호원 영업소장



문강준 대리

## (주)노루페인트 울산 지점

53년 전인 1962년, 당시 정부는 울산을 우리나라 공업화의 핵심지역으로 선정,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울산공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중공업, 자동차, 조선사가 속속 터를 잡은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화학 공업도시이자 110만 명의 인구를 품은 광역시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며 발전해 왔다. 이곳에 (주)노루페인트는 지난 1월, 울산 지점을 열며 또 한번의 비약적 도전을 시작했다.

## 우린 모두 경상도 사나이

작년까지 울산은 부산 지점의 울산 영업소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 울산 영업소와 대구 지점의 포항 영업소를 포함하여 1월에 개소한 울산 지점은 울산과 포항 그리고 경주, 영천, 울진 등 부산과 대구 사이의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한 지점 식구가 된 이들은 울산의 김광덕 지점장, 이장희 과장, 박형근 대리 그리고 포항 영업소의 신호원 영업소장, 문강준 대리로, 김광덕 지점장은 “퍼펙트한 구성”이라고 자부한다. “포항과 울산은 공통적으로 중방식 시장이 강한 지역이라 서로 주고받을 정보가 많습니다. 각자 탁월한 분야를 가진 정예 요원들이 모였으니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김광덕 지점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했다. 중방식 쪽으로 도장 감리 기술 자격증이 있는 이장희 과장, 자동차 보수용 도료 쪽의 강자로 신시장 개척에 능한 박형근 대리, 창원 지역에서 공업용을 담당해 온 문강준 대리, 포항을 뛰뚫고 있는 신호원 영업소장 등 울산 지점 식구들은 모두 과장, 대리로 필드 업무에 능한 이들이다. 그리고 보니 모두 경상도 사투리인 것도 재미있다.

“모두 경상도 출신이라서요,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지점장님께서 서로 소통하는 데 편안하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박형근 대리의 말에 경상도 사나이들답게 우직하니 고개만 끄덕이는 그들, 역시 한 동네 식구들 맞다!



**도전 앞에  
난공불락은 없다!**

울산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이름은 ‘현대’다. 울산 성장의 큰 역할을 해 온 현대중공업과 현대조선, 현대자동차가 자리해 있기에, 축구단부터 고등학교와 중학교, 백화점, 예술회관 등에서도 현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오죽하면 울산은 현대 시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때문에, 현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경쟁사가 페인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주)노루페인트가 도전장을 냈 것이다.

“한 경쟁사 외에 다른 회사는 지점은 물론, 출장 소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시장을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볼륨을 키워 공격적으로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박형근 대리와 이장희 과장은 사뭇 비장한 말투다. 경쟁사는 현지 공장이 있음은 물론, 감리 인원도 많고 네트워크마저 단단하다. 그야말로 경쟁사의 텃밭이요, 난공불락

의 점유율. 하지만 울산 지점은 도전의 역사에서 희망을 본다.

“재도장 시장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약 5년 전만 해도 경쟁사의 시장점유율이 80%였는데 현재는 노루페인트가 80%를 차지합니다. 중방식 시장 역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노루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빨라지는 소통의 속도만큼이나 지점의 시너지 효과도 높아지리라는 것이 김광덕 지점장의 기대다. 여기에 내년도로 예정된 동북아 오일 허브도 좋은 기회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결과는 빛날 것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도전하는 그들. 적진 한가운데 전진기지를 짓고 악전고투를 각오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응원일 것이다.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기다리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에너지세이버로 화이트루프를**  
뜨거운 건물 위에서 하얀 방패가 되어준 건 (주)노루페인트의 차열도료, ‘에너지세이버 우레탄 R’이다. 옥상 페인팅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화이트루프 캠페인에 여러 업체가 참여를 원하지만 국제 기준의 에너지 절약 인증 마크인 ‘에너지 스타’를 가진 것은 (주)노루페인트가 유일하다.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함께 진행하는 십년후연구소는 (주)노루페인트가 화이트루프에 대해 가장 앞선 전문자료와 체계적인 시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한다. 그러한 십년후연구소는 어떤 곳일까?

“십년후연구소라고 하니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하연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은 미소부터 지어 보였다. “10년 후,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게 될까요? 미래학자들이 이에 대해 예측을 내놓는다면, 저희는 10년 후의 의식주를 준비하는 작지만 중요한 행동들을 기획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일을 합니다. 옥상흰빛 캠페인과 ‘화이트루프클러시티-굿바이, 나의 더위’라는 옥탑 지붕 페인팅 및 옥탑방 문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그중 하나지요.”

옥상에서 하나 더 올라간 옥탑방의 지붕이라니, 그 선정의 이유가 궁금하다. “도시에서 더위에 가장 쉽게 노출되기에 변화가 시급한 이들이 옥탑방 생활 자거든요. 옥상 전체보다 지붕의 면적이 적으니 건물주의 협력을 구하기도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 직접 할 수 있으니까요.” 하연선 연구원의 ‘서로’와 ‘직접’에는 힘이 더 실린다. 옥탑방의 환경을 개선하며 서로 도와 함께 자립하는 힘을 쌓는 것, 그것은 10년 후를 기대하게끔 하는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 굿바이, 더위 헬로우! 화이트루프

서울시,  
십년후연구소와 함께하는  
화이트루프클러시티

작년 8월 어느 날,  
온통 초록색 방수페인트로 뒤덮인  
서울 도심의 옥상 중 하나에  
슥슥슥 눈부신 흰색 페인트가 입혀졌다.  
새 옷을 입자 옥상은 뜨거운 태양광을 텡겨내어  
건물 내 온도를 낮추고  
냉방 에너지를 줄이는 기특한 일을 해냈다.  
서울시와 십년후연구소, (주)노루페인트는  
이 ‘옥상흰빛’ 행사를 함께한 이후, 계속하여  
‘화이트루프클러시티’란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도시의 더위에게 안녕을 고하는 중이다.



저희는 10년 후의  
의식주를 준비하는  
작지만 중요한 행동들을  
기획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일을 합니다.

십년후연구소

#### 굿바이, 나의 더위

화이트루프의 실질적인 효과를 묻자 하연선 연구원은 직접 시공한 결과를 예로 들었다. “외기온도 32도인 한낮의 실내 천장 온도가 58~60도였던 게 시공 후 28~30도로 내려갔어요. 후끈하던 내부 열기도 사라졌고요.” 국외의 많은 연구 결과도 이를 증명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2010년, “한낮에 66°C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일반 지붕에 비해 하얀 지붕의 ‘쿨루프’는 28°C 이상의 냉각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세계 27개 도시에서 쿨루프 실험 결과 냉방부하가 18~93%까지 감소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 곳곳에서는 쿨루프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2014년부터 쿨루프를 시범 추진한 서울시 역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Building Retrofit Project) 자금융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옥상단열 및 차열 공사로도 확대하는 등 쿨루프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에 쓰인 제품과 같은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한 것이 바로 ‘에너지세이버 우레탄 R’이다. (주)노루페인트 공업개척팀 김치훈 대리는 이 제품이 ‘옥상 열차단에 가장 최적화된’ 기능성 도료라고 말한다.



#### 10년 후엔 더 시원하게

화이트루프의 효과는 이처럼 분명하기에, 하연선 연구원은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 “열차단의 효과가 확실한데도 초록색 옥상에 익숙하신 분들께선 반감이 많으세요. 흰색이 눈이 부셔 부담스럽다면 회색으로 권하는 등 꾸준히 인식을 바꿔 나갈 겁니다. 상반기의 결과들을 가지고 누구나 화이트루프를 만들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고요.” 하연선 연구원은 신축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흰색과 회색이 추천되는 인식의 변화가 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어컨을 켜면 나는 시원하지만 내가 빼낸 더위로 밖은 더 더워진다. 반면, 나와 함께 도시도, 지구도 시원해지는 화이트루프는 모두에게 좋다. (주)노루페인트의 차별도료로 옥상이 더 많이 하얘지고 반짝이기를, 그래서 10년 후는 더 시원해지기를, 함께 꿈꾸고 행동해 보자.

## 페인트로 바꾸는 세상

### (주)노루페인트와 경기도청의 환경개선 MOU

페인트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산뜻한 컬러로 분위기를 바꾸고, 방수로 건물을 보호하고, 차열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외에도 (주)노루페인트는 페인트로 이웃을 도울 수 있음을 안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경기디자인나눔프로젝트를 통해 복지시설에 페인트를 지원하는 (주)노루페인트의 사회공헌사업은 이러한 암을 실천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이 하나하나 모이면 세상은 조금씩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 긴 가뭄 끝 반가운 손님

긴 가뭄 끝에 반가운 비가 촉촉히 내리던 날, 경기도 이천시의 중증장애인시설인 엘리엘동산에는 아침부터 줄줄이 차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경기도 디자인 자원봉사자인 스무 명 가량의 대학생들, 그리고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과 함께한 경기복지재단의 직원들이었다. 이날은 바로 경기도와 (주)노루페인트가 MOU를 맺어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하기로 한 첫 날로, 개선작업 대상인 복도와 내부시설에는 이미 (주)노루페인트의 친환경페인트인 순&수가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다.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는 이 먼 곳까지 도움을 주시려 오신 데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벽틈으로 바람과 누수가 있어 이곳에서 지내시는 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어요”라며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넨 엘리엘 동산의 박춘화 원장은 이번 작업에 기대와 감사를 표했다. 짧은 오리엔테이션 후 저 멀리 안양공장에서부터 실려온 순&수가 힘을 발휘할 시간! 본격적인 페인팅 작업이 시작되었다.





### 따뜻한 마음을 페인트에 담아

“페인트 접착성이 아주 좋은데요? 냄새도 안 나고요.” 작업에 참여한 경기도청 공공디자인팀장 김승기 주무관은 연신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한다. 원래 건축과 인테리어를 줄곧 해왔던 공공디자인팀은 페인트에 정통한 전문가들. 비가 오는 날이면 습도가 높고 창도 열 수 없어 페인팅 작업이 어려운데 순&수는 발림이 워낙 좋은 데다 냄새도 나지 않아 일정 변경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 학생들도 마치 작품을 대하는 듯 정성껏 봇질에 집중하는 중이다.

이번 작업에 선정된 컬러는 따뜻한 기운이 도는 회백색과 연분홍, 은은한 올리브색과 깔끔한 화이트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자원봉사 학생들과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함께 선정했다. 사회복지과도 아닌 건축디자인과에서 복지시설 환경개선에 참여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신용복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주무관은 “환경 디자인을 통해 생활인들에게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복지 쪽에서는 디자인이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환경은 치유의 힘을 주죠.”

### 컬러로 아름다운 환경을

신용복 주무관의 대답은 (주)노루페인트가 그간 펼쳐온 여러 사회공헌사업의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페인트로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를 통해 페인트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것 말이다.

경기도청의 꼼꼼한 준비와 자원봉사자들의 마음 담은 노동, 그리고 (주)노루페인트의 순&수로 시설이 화사해진 날, 박춘화 원장은 “여러 곳에서 모여 함께 드는 모습에 이곳의 모든 가족이 행복해졌다”고 말했다. 엘리엘동산에 이어 포천 소망원, 의왕 녹향원 등이 차후 시설개선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다. 다음은 (주)노루페인트의 어떤 컬러가 우리 이웃들의 공간을 꾸미고 마음을 밝힐지 기대되는 바다.



## 우리는 모두 한가족, NOROO가족큰잔치

가정의 달인 5월, 서울랜드에서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가족인 NOROO인들이 모여 대규모 가족행사를 열었다.

지난 2005년도에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NOROO가족큰잔치에 이어 네 번째 행사가 된 이날,

모든 NOROO인들과 가족들은 다채롭게 준비된 일정에 따라 모두 어우러지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NOROO가족 파이팅!

NOROO가족큰잔치가 있던 토요일, 마침 주말을 맞아 북적이던 서울랜드에서는 NOROO 배낭을 맨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길게 늘어선 놀이기구 줄 속에서, 식당 가에서, 쉼터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놀이동산을 즐기던 NOROO인들과 가족들은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행사 장소인 삼천리대극장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시원한 바람이 NOROO가족큰잔치라고 쓰인 애드벌룬을 높이 띠우는 2시, 삼천리대극장의 객석은 점점 차 올랐고 “NOROO 파이팅!”이라는 함성과 함께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1부 사회자인 개그맨 변기수 씨의 넉살 좋은 인사와 함께 화려한 의상으로 나타난 전자현악기 여성그룹 밀키웨이는 클래식부터 영화 음악까지 가족들을 위한 음악을 신나게 연주해 행사 초반의 분위기를 띠웠다. 이어 단상 위에 오른 (주)노루홀딩스의 정준호 사장은 “NOROO가 70주년을 맞은 것은 성장 원동력이 되어 준 NOROO 가족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한영재 회장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이니만큼 신나게 즐기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행사를 준비한 여러 수고에 감사하는 인사도 빠뜨리지 않았다. 정준호 사장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박연수 노조위원장은 패기 넘치는 목소리로 “NOROO 그룹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외치며 백년 대계가 아닌 천년대계를 향해 NOROO인들과 함께 파이팅을 연속 구호하여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열었다.



### 엄마의 열정, 아빠의 끈기

신인 여성그룹 베티엘의 깜찍한 노래와 춤에 이어 드디어 NOROO인들의 끼를 발산하는 ‘엄마와 만보기’, ‘아빠는 슈퍼맨’ 등의 행사가 열리자 적극적인 NOROO 가족들이 너도나도 무대에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머리에 단 만보기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 엄마와 아이들이 온몸으로 추는 막춤에 웃음보가 터지고, 아이를 등에 태우고 팔굽혀 퍼기를 하는 아빠들의 악전고투는 재미와 함께 NOROO 인들의 끈기와 저력을 보여주어 박수 세례를 받았다.

어느덧 행사는 2부로 접어들어 행사의 꽃인 노래자랑이 시작되었다. 각 계열사 사장단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노래자랑에서는 여느 유명가수들의 무대보다 더 열렬한 청중의 호응 속에 NOROO인들의 열창이 이어졌다. 조금은 서투른 음정에 미소도 짓고, 현수막까지 동원한 동료들의 열띤 응원에 흐뭇함도 느끼며 NOROO인들의 노래를 듣던 시간은 NOROO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소중히 느끼게 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 한가족의 마음으로 NOROO!

노래자랑에 이어 인기그룹 크레용팝의 무대는 행사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너도나도 빠빠빠빠~를 따라 부르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신나게 몸을 흔들어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거듭된 앵콜 곡으로 흥을 돋운 후 드디어 행사 마지막 시간은 모두가 기다리던 행운권 추첨의 순서!マイ크에서 불려지는 숫자 하나하나에 탄성과 탄식이 교차하며 행사장 안은 긴장과 기대, 기쁨이 술렁였다. NOROO의 통 큰 선물이 하나하나 당첨자를 찾아간 후, “NOROO!”를 외치는 구호와 함께 폭죽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행사장을 나서는 마지막까지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NOROO인들과 그 가족들이 그간 쑥쑥 자란 자녀들의 모습을 대견해하고 반가워하며 덕담을 나누는 정겨웠던 시간, NOROO가족큰잔치는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 서로 한가족임을 확인한 따뜻한 자리였다.





## 한번 NOROO는 영원한 NOROO

### (주)동선

깔끔한 외관의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높은 층고 아래 시원시원하게 정리된 페인트 통들이 눈에 들어왔다. 다양한 색상으로 리뉴얼된 패키지는 가진 풍미로 정렬하여 더욱 산뜻해 보이고 PANTONE Premium Paints로 마무리된 벽은 경쾌한 컬러감이 돋보인다. 목재로 단장한 정면이 친환경적인 느낌을 전하는 이곳은 울산의 특약점, (주)동선이다.

### 영업, 다시 아래에서부터

“페인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으니까요.” 목재와 PANTONE Premium Paints를 이용한 매장 인테리어에 대해 묻자 (주)동선의 김건철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페인트 하면 연상되는 안 좋은 냄새나, 얼룩진 작업복 등의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그는 늘 깔끔한 매장과 옷차림을 강조한다. 그래서인가, 첫 인상에서도 마치 회사원 같은 느낌을 주는 김건철 사장은 실제로 매장을 오픈하기 전까지 회사원이었다. 그 회사가 바로 (주)노루페인트였다.

“안양의 자보팀에서 일하다가 부산 지점, 김해 영업소, 울산 영업소를 거쳤죠. 그리고 2006년에 퇴사하고 선암동에 매장을 냈습니다. 다시 신입사원이 된 듯 밑바닥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죠. 기존 대리점들을 고려하여 판매가 아닌 납품 위주로 영업을 했습니다.”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인 울산에서의 영업은 쉽지 않았을 터, 그러나 그는 ‘맨땅에 헤딩한다’는 생각과 ‘한 우물만 파자란 생각으로 집중적 영업을 펼쳤다. 그 성공 실적을 기반으로 점점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매출은 한번도 상승세를 벗어난 적이 없다.



“안양에 있다가 지방을 다니면서 공업과 건축, 중방식 등을 다양하게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자주 로테이션시키는 NOROO 덕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온산공단과 울산석유화학 공단 가운데 위치한 상남리로 이전하며 매장을 더욱 넓혔다. 그러나 김건철 사장은 더 큰 매장이 목표라고 말한다. “경쟁사는 중방식용 도료로 크지 않은 매장에서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틈새 공략을 위해 노루페인트의 강점인 건축용 도료를 앞세우려면 인근에 없는 대형 매장으로 상품을 골고루 갖추고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노루페인트와 수입페인트를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저희 제품을 어필합니다. NOROO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품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 영원한 NOROO 영업맨을 위해

그는 대형 매장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그에 대해 울산 지점의 이장희 과장은 “뚜렷한 목표 아래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한다. 김건철 사장은 저녁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는가 하면, 부인인 안선민 씨는 컬러리스트 자격증과 건축 도장 자격증을 땠을 정도. 해외상품과 비교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도 김건철 사장의 영업 노하우다. “사실 공단 측은 주택보다 더 좋은 도료를 원합니다. 해외의 좋은 제품을 더 먼저 접하기도 하고, 남이 쓰지 않았던 것을 써 보는 것에 대해 자부심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럴 때 노루페인트와 수입페인트를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저희 제품을 어필합니다. NOROO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품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 자부심 때문일까, 김건철 사장은 영업 중에 자신을 대리점 사장이 아닌, (주)노루페인트의 직원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고 말한다. 퇴사하며 “남이 되는 게 아니라, 영업사원을 한 명 더 얻는 것”이라고 했다는 그는 “OB들이 꾸준하게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영원한 NOROO의 영업맨을 위해서 말입니다”는 바람을 밝혔다. 단단한 인연으로 서로 힘을 보태는 (주)동선과 NOROO, 그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꿔갈지 기대해 본다.



**emarttown × The Life × COLOR STUDIO  
by NOROO**

## 생활 속의 NOROO, 이마트타운 더라이프 컬러스튜디오 by NOROO



지난 6월 18일, 일산 칸텍스에 이마트타운이 오픈했다.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둘러 '공룡 매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아기자기한 생활 소품부터 요트와 스파, 캠핑용 캐리밴까지 선보이며 인파가 몰리고 있는 중. 이마트타운의 복합 생활용품 전문 매장 더라이프(the Life)에 가면 반기운 이름을 만날 수 있다. 칼라메이트 디자인하우스의 첫 번째 매장인 '더라이프 컬러스튜디오 by NOROO(노루페인트)'다.



### 더라이프(the Life) 컬러스튜디오 by NOROO (노루페인트)

아름답고 건강한 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칼라메이트 디자인하우스가 더라이프 매장에 '더라이프 컬러스튜디오 by NOROO (노루페인트)'를 오픈했다. 더라이프는 이마트가 새롭게 내세운 한국형 생활용품 전문 매장으로, 1천 평 규모로 꾸민 각 생활공간별 쇼룸에 가구, 침구, 수납, 사무, 욕실, 주방 등 5,000여 품목의 다양한 제품을 갖추어서 고객이 자유로이 보고 즐기며 소평할 수 있다. 그리고 DIY를 위한 '디자인 스튜디오'를 별도로 꾸며 각종 목공 재료와 시공 용품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곳에 더라이프(the Life) 컬러스튜디오 by NOROO (노루페인트)가 자리한 것이다.

칼라메이트 디자인하우스의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인 '더라이프(the Life) 컬러스튜디오 by NOROO (노루페인트)'는 직접 페인트를 빌라보며 그 색상과 느낌을 확인하고 구매는 물론 컬러 인테리어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차분한 목재 진열장에 차곡차곡 채워진 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의 페인트와 화실처럼

꾸며진 체험 코너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제품 소개와 가격표도 마치 카페 메뉴판처럼 설치하여 친근함을 더했다. 이 매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더라이프(주)노루페인트가 협업하여 만든 PL 제품, 컬러스튜디오 페인트다. 1L에 18,000원으로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이 특징이며 이마트타운을 이용할 DIY 고객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주)노루페인트의 친환경성을 담았다. 컬러스튜디오 페인트의 산뜻한 색상은 더라이프 매장 안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의 생활공간별로 가구를 배치해 마치 오픈 하우스처럼 꾸민 이 쇼룸의 컬러들은 모두 컬러스튜디오 페인트와 PANTONE Premium Paints가 담당한 것이다. 각 컬러들마다 각 페인트의 번호 및 색상명이 적혀 있어, 고객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자아낸다. 벽지로는 결코 만들지 못할 화사한, 혹은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 낸 이곳에서 고객들은 페인팅의 효과를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 보며 컬러 인테리어에 도전해 보게 될 것이다.

# News Briefing

## • 뉴스 브리핑

48

NOROO QUARTERLY MAGAZINE



2015 NOROO 그룹 신제품/신기술 전시회 개최



㈜노루홀딩스, 농촌진흥청 공동연구 차광제 현장 평가회 실시

49

SUMMER. 2015.



서울대학교에 PANTONE Premium Paints 마르살라 적용



여름철 '열차단 유리페인트' 인기

### (주)노루홀딩스

#### 2015 NOROO 그룹 신제품/신기술 전시회 개최

NOROO 그룹이 주관한 '2015년 상반기 신제품, 신기술 전시회'가 인양공장 스마트센터 세미나실에서 5월 18일(월)부터 5월

31일(일)까지 2주간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노루홀딩스, ㈜노루페인트, ㈜노루코일코팅, ㈜노루오토코팅, ㈜노루비 케미칼, ㈜노루일안씨가 참여하여 2015년 상반기에 출시되었거나 개발 진행 중인 41종의 제품과 기술에 대해 소개 및 전시하였다. 각 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업계 부서 및 기술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노루홀딩스, 농촌진흥청 공동연구 차광제

##### 현장 평가회 실시

㈜노루홀딩스의 계열사인 ㈜노루기반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비닐하우스용 차광제(출원특허 10-2015-0061877)를 이용한 기술 현장 평가회를 지난 5월 6일 경남 함안 소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현

장에서 가졌다. 이날, 농업 관련 공공기관, 연구 조직, 인근 지역의 농가 등에서 모인 50여 명은 딸기를 재배하는 온실에서의 시험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한편, 차광제 투과율에 따라 비닐 온실에서 직접 실험 재배한 딸기의 성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당도와 경도 등 과질의 결과를 알아봄으로써 차광제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였다.

여름철 고온이 시작되면 상품성이 저하되고 유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 시설하우스는 4월이나 5월 초면 딸기의 수확을 접는다. 그러나 이번에 공동 개발한 차광제를 시설하우스에 도포하면 시설 내 온도를 2~4°C 낮출 수 있어 하절기에도 품질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다.

㈜노루기반과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차광제는 1t으로 200평의 비닐하우스를 도포할 수 있어 기존의 수입 제품이나 차광막보다 30~40% 저렴하며, 물과 혼합하여 농

가에 있는 고압 분무기를 사용해 도포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온실 농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광제 성분이 강우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거되어 기존 비닐의 투명성이 회복됨으로써 농가의 일손 부담을 줄여주며 토양에 무해하여 환경 오염의 우려도 없다.

### (주)노루페인트

#### 서울대학교에

##### PANTONE Premium Paints 마르살라 적용

지난 4월 26일, ㈜노루페인트는 서울대학교 신공학관 1층 정면을 2015년 팬톤 올해의 컬러인 마르살라로 적용하고 ㈜노루페인트와 팬톤을 소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컬러에 대한 내용과 함께 홍보하였다. 이번 서울대학교 신공학관에 팬톤 컬러가 적용된 공간은 앞으로 해마다 올해의 컬러를 적용하여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에너지세이버 열차단 유리페인트는 아파트, 주택, 음식점 등 뜨거운 핫빛으로 인한 더위에 고생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개발된 획기적인 DIY 페인트로, 앞으로 노루페인트는 소비자의 필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페인트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름철 '열차단 유리페인트' 인기

㈜노루페인트가 국내 최초로 출시한 '에너지세이버 열차단 유리페인트'가 인기다. 유리면에 바르기만 하면 태양열을 차단해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낼는 이 페인트는 ㈜노루페인트에서 개발한 특수 나노 무기 안료를 사용한 페인트로 누구나 손쉽게 둘러로 유리면에 칠하고 20분 정도 지나면 선팅 필름보다 완벽히 밀착



01. NOROO가족큰잔치에서 만난 귀여운 꼬마 소녀입니다.  
순수함이 가득 담긴 맑은 눈망울이 캐리커처에 그대로 담겼네요!  
NOROO 가족의 포토제닉 되시겠습니다~.



04. 화이트루프 콜시티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십년후연구소의 하연선 연구원께서  
촬영을 위해 자세를 잡자 어디선가 나타난 명명이도 촬영에 협조를 해주는군요~  
서울의 모든 옥상이 이렇게 자연으로 뒤덮여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2. NOROO가족큰잔치에서  
아빠의 단단한 팔과 넓은 등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이쯤이야~ 하는 듯 부자의 표정이 밝기만 하네요. ^^

03. 울산 시장 공략을 위해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주)노루페인트 울산 지점의 다섯 전사들입니다.  
젊은 그들의 패기라면 울산 시장도 꾸준히 변해가겠지요!

